



사천(동성)이씨 대중회 소식지

제3호

뿌리

- 발행처 : 사천이씨 대중회
- 발행인 : 회장 이선영
- 편집인 : 부회장 이영근
- 발행일 : 2014년 4월 20일

주소 :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259-1 | http://sachonlee.net

인사말씀

국내외 宗人에게



대중회 회장 李善永

국내외에 계시는 종인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도 각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해마다 이 무렵 4월 셋째 일요일이면 유서 깊은 본관 사천(동성)에서 시조공 제향과 대중회 총회가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발행되고 있는 대중회 소식 「뿌리」를 통해 종인 여러분에게 인사말씀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천한 저가 여러분들의 천거로 대중회 회장이라는 자리를 맡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임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모두가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훌륭하게 일구어 낸 업적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전임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모두는 시조사우 창건, 신 대동보 편찬, 수서시첩(壽瑞詩帖) 재번역 발간 등과 같은 업적을 일구어 내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구암(龜巖) 선조의 학덕을 기리는 구암제가 사천지역 문화행사로 정착되도록 하였고, 구암 탄신 50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수 있게 하였으며, 구계서원의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구암학연구소가 설치될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모두가 전임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모두의 희생과 봉사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업적은 한두 사람의 회장·임원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종인의 협조와 관심이 없이는 결코 될 수 없는 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종인 여러분 대중회는 선조의 유덕을 경모하고 종인 상호간의 대동단결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되어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시기에 창씨개명의 압박과 토지분쟁의 소용돌이를 극복하고, 선조들이 남기신 업적과 유적을 발굴하고 보존하여 오늘날까지 뿌리를 지키고 이어 오는데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중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후손에게 물

려 줄 시조사우와 선조의 유적을 관리·보존하는 일, 선조의 훌륭한 저술업적을 번역·간행하는 일, 무인년(1998년 8월) 대동보를 일정한 시기에 수보(修譜)하는 일, 구계서원의 대관대 복원에 관한 일, 이 밖에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종인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중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보다, 나는 대중회를 위해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대중회를 믿고 종인 상호간에 화합·단결과 소통을 해 나간다면, 대중회가 추구하는 일들은 차근차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대중회는 지역화수회를 더욱 더 활성화하여 일가의 친목이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은 물론 현존하신 종인 중 각 종파별로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가문을 빛낸 자랑스러운 종인을 발굴하여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업적을 길이 보존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선조께서 베푸신 뜻을 받들고 덕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원사 사천(동성)이씨 세덕비문 말미에 퇴계선생 후손이신 이동영 박사는 찬하기를, “고조선생 형제분의 복록을 이어 온 동성 벌족이여 방국(邦國)의 흥유(鴻儒)들이 수서시를 읊어 흠모했도다. 또 구암 선생의 학문과 충효로 가성(家聲)을 높였는데 대대로 현사가 이어 났으니 성대한 덕이 찬란하구나. 뿌리 깊은 나무는 꽃도 좋고 열매도 무성하며,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으리라. 그대들의 조상을 잊지 말고 공손히 받들어서 천천 만세토록 무궁하기를 기원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불편한 몸을 무릅쓰고 물심양면으로 묵묵히 대중회 운영에 애써 주시는 봉록 고문님, 영규 전 회장님, 영섭 현 총무국장님, 승열 이사님과 대중회 소식 「뿌리」 3호를 편집 발간한 영근 부회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내외의 전 종인은 하시는 사업의 번창과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시고, 한층 더 대중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몸살, 그 봄의 초입에서



이 병 무
(참지공파 26세)

처음 어머니 손을 잡고 초등학교에 갈 때 생각합니다. 그 설레임은 봄의 신열과 더불어 차가운 바람되어 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름이 곱을 이루는데 그 주름을 따라 봄의 정령은 언제나 나를 보고 웃고 있습니다. 그 싱그러운 아름다움으로 인해 나이를 잊어버리고 행복해 합니다.

이제 주름사이사이로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물소리가 나고 봄의 노래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 소리도 들리고 난 그 속에서 배를 타고 향긋하게 노래를 부릅니다.

어머님이 옆에서 웃으며 아들이 최고라고 응원합니다. 봄의 초입에 서서 어머니 모습을 그리워 합니다.

2014년 대중회 임원회의

일시 : 2014년 2월 22일(토)
장소 : 조원사 일원재



2013년 종무(宗務)보고

1. 구암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행사

- ▷ 일시 : 2013년 2월 3일 (음력 12월 23일)
- ▷ 장소 : 구계서원, 사천고등학교 강당
- ▷ 특기사항 : 행사에 많은 종인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음.
- ▷ 요망사항 : 탄신기념사업으로 발간한 구암집(원집, 속집, 별집) 400권을 인수하여 종인에게 유상 보급(권당 20,000원) → 잔여분이 많이 있으므로 구입신청 요망.



2. 춘계제향 봉행

- ▷ 일시 : 2013년 4월 21일
- ▷ 유사 : 성균진사공 화암문중
- ▷ 참석 : 종인 150여명



주요안건 토의



1. 회장추천의 건

- ▷ 전임 회장님(故 鍾宇)의 별세
- ▷ 신임 회장으로 善永 부회장(참지공파 24세, 부산화수회 회장)을 추천

2. 시조공 춘계대제 봉행

- ▷ 일시 및 장소 : 2014년 4월 20일(일) 11시 조원사
- ▷ 유사문중 : 백인제 고읍문중

3. 구암선생 춘계제향 참석

- ▷ 일시 및 장소 : 2014년 3월 27일(목) 10시 구계서원
- ▷ 퇴계선생 복위제향을 겸하는 행사이며, 참석 이사 전원 입회신청서 및 입회금을 제출하고 제향에 참석하기로 함.



4. 조원사 관리

- ▷ (가칭)조원사관리지침(안)에 대해 이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총회에서 정하기로 하고, 총회 시까지 사천시청 홈페이지에 관리인을 공개모집하기로 함.

5. 종보(뿌리 제3호) 발행

- ▷ 각 파별로 3월 말까지 문중소식 원고를 제출.

6. 장학기금 조성의 건

- ▷ 고 종우회장의 유지인 장학기금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함.

7. 제5회 구암제 후원

- ▷ 예년과 같이 후원하기로 하고, 2백만 원을 후원하기로 함.



8. 龜巖大賞 전국시조경쟁대회 후원

- ▷ 30만원을 후원하기로 함.



9. 미납회비 납부

- ▷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은 전년도 미납회비를 조속 납부하기로 함.
- ▷ 연회비 - 회장 : 500,000원, 부회장 : 300,000원, 이사 : 100,000원
- ▷ 회비납부 계좌번호 : 새마을금고 9002-1384-3997-4 사천이씨대중회

10.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 ▷ 일반회계(2014.2.22. 현재)
- 수입 : 7,402,086원
- 지출 : 4,101,170원
- 잔액 : 3,300,916원
- 장학기금(2014.2.22. 현재) : 5,176,948원
- 장학기금계좌번호 : 새마을금고 9002-1435-3255-0 사천이씨장학회

구계서원 소식

- ▷ 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회(회장 장창현)는 진성이씨 문중과 협의를 거쳐 퇴계선생의 위패를 구계서원에 복위제향을 결의하고, 금년 2014년 3월 27일 춘계제향부터 시행하기로 함.
- ▷ 구계서원 명의재 보수공사, 서원 서쪽 하천개수 및 조경공사, 서원 소유부동산 3건 처분 결의가 있었음.
- ▷ 전국서원연합회에 가입함.

사천문화원 소식

- ▷ 사천시의 지원으로 사천문화원 내에 “구암이정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함 → 많은 종인의 참여와 관심을 바램.



구암 이정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구계서원 대관대
유계회 회장 정창현

완연한 봄기운이 은누리에 스며드는 계절입니다. 사천 이씨 종친회 이선영 회장님과 회원님의 가정 에 평안하심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대중회 소식지 "뿌리" 제3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지역의 명성 높은 문중으로서 다양한 역할과 참여로 고장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뿌리를 잘 내렸 습니다. 특히 사천의 큰 인물 구암 이정선생 유덕을 높이 는 기회로 지난해 구암탄신 500주년 기념행사를 지역단체와 문중의 도움으로 성공리에 마치고 나니 구암선생의 학문과 미행(美行)은 물론 이씨 문 중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날 1,000여명이 넘는 분이 참여한 탄신행사는 구 계서원 구산사의 제례봉행을 시작으로 영정봉송, 봉정, 기념식과 축하공연 등으로 축하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며 참여한 모든 분들 의 큰 호응으로 선생의 학문, 효행, 덕행을 다시 한번 높으신 인품을 갖추신 성 현으로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암 선생의 학문을 연구하는 성기옥 교수의 "구암의 삶과 학문" 의 명강의로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학문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며, 마지막 행사인 열두번째 개최하는 학술 세미나는 경북대학교 정우락 교수와 이영호 박 사 등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시간가는 줄 모르게 2시간을 훌쩍 겨 토론을 중단할 정도로 참여자 모두의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선생의 풀지 못한 학문은 제13회 학술 세미나 때 좋은 시간 갖기로 하고 종료되었습니다.

그날의 행사는 구암 선생에 대한 많은 정보와 자료로 보탬을 준 행사로 유종 의 미를 장식하였습니다. 행사에 도움주신 사천문화원 박동선 원장, 이은식 박 사, 이영섭 문중 총무, 서원 임원님의 도움 또한 성공의 원동력으로 지면을 통 해 감사드립니다.

3월27일 춘향제례를 학문과 심정으로 가까이한 퇴계 이황 선생을 구산사에 봉안하였습니다. 더 큰 정 나누시길 기원합니다.

금년 4월 12일은 제 5회 구암제 과거시험 재현 행사와 시화전이 선진리성에 서 열립니다. 참여와 성원을 바라며 앞날에 사천이씨 문중의 번성과 발전을 바 라오며 사단법인 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회 발전에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사(癸巳)년은 가고 갑오(甲午)년을 맞으면서



성균진사공 25세
이 영 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선조 의 제향일에는 반드시 전 종 인은 참여하여 조상의 은덕 을 기르시기를 바라면서 다 음 날짜를 기억해 주시기 바 랍니다.

- ▷ 조원사 제향일 : 매년 양력 4월 3주째 일요일
 - ▷ 구계서원 제향일: 매년 음력 2월 말경 정(丁)자가 드는 날
- 예 : 2014년 음력 2월 27일 정유(丁酉)일

우리 문중은 "송조상문, 충효전세, 종의돈독" 으로 조상을 숭상하고 문중을 존중하고 충과 효를 대대로 이어가게 하며 친족간의 정의를 두텁게 하는 종훈을 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들은 전국 각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씨족의 혈맥을 이어온 선조는 고려 제25대 충렬왕(1274~1308) 때 송악군수를 지내신 "이식" 을 시조로 받들고 선향을 사천으로 하는 천여년의 사족이 며, 우리의 조상은 백세에 스승될 만한 학문이 있고 인륜과 도덕에 앞서는 효행이 있어서 이를 가풍으로 성관의 자존을 지켜온 종족입니다.

우리들의 선조 제향에 대하여는 1993년 10월 31일

종인 100여명이 참석하여 기공식을 하여 1차로 조원사 사당을 준공하여 1995년 4월 16일자 시조 외 6위의 선 조 위패를 종인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안식을 거 행하였고, 여기에 봉안된 선조는 시조 식, 2세조 충수, 3세조 종, 4세조 세방, 5세조 언, 6세조 자, 6세조 욱 선조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구암 이정 선생의 제향에 대하여는 선생은 조선 중 기 20여년간 관직 생활에서 사헌부의 감찰, 사간원의 대사간, 홍문관의 부제학에 제수, 내직으로는 넷 임금 (중종, 인종, 명종, 선조)을 섬긴 유신으로 조정에는 백 관의 모범이 되고, 외직으로는 다섯고을(영천, 선산군 수, 청주목사, 경주부윤, 순천부사)의 수장으로서 청렴 결백한 관직생활을 하여 백성을 편하게 하였으며, 3대 왕의 심상 3년을 입으로서 충절대의의 본을 몸소 행하 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조상에는 삼대(부모, 조 부모, 증조부모)를 추영하는 광영을 입었으며, 후진 양 성과 그 고을에 인연이 깊은 선현들을 추모하기 위하 여 세 곳(서악, 옥천, 구암)에 정사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사천읍에서 금곡쪽에 로 지방도로 1002호선 약 4km가번 좌측 구암땅 만죽산 중턱에 경남도 문화재자료 제40호인 구계서원 구산사 에 3분의 선생(구암 이정, 퇴계 이황, 성몽 김덕함)의 위패를 모신 구산사 사당이 있습니다.

우리 전 종인께서는 1년에 단 한번이라도 제향에 참 석하여 추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쁜 여인에 대하여 -침어 낙안 폐월 수화(沈語 落雁 閉月 羞花)



의령고등학교
교장 이은식 박사

세계역사를 보면 남자들은 미인 을 매우 좋아한다. 거창하게 세계 역사라는 말을 빼면,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데, 특히 얼굴 이 이쁜 여자를 좋아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는 이쁜 여자를 좋아한다.

우리의 문화는 중국과 밀접한 연 관이 있어서 웬지 중국의 고사를 들추어 말하면 유식해 보이고 객관적 인 가치가 있어 보이는 일이 종종 있다. 그래서 주로 중국의 미인을 미인의 표본으로 이야기하려 한다.

그런데 그냥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좋아한다고만 하면 웬지 속물처럼 보인다. 이쁜 여자라는 말이 웬지 남자들은 이쁜 여자에게는 무조건 흘러든다는 여자들의 비아냥거림을 계산해서인지 '이쁜 여자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물에게도 감동을 준다' 는 명제를 슬그머니 흘렸다. 여기서 나온 말이 침어·낙안·폐월·수화(沈語 落雁 閉月 羞花)다.

중국의 4대미인으로; 서시(西施), 왕소군(王昭君), 초선(貂蟬), 양귀비(楊貴妃)로 꼽는데 이를 비유하여 나온 말이다. 침어(沈語)는 글자로만 보면 '물고기가 가라앉았다' 로 해석된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가라앉는 일이야 흔한 일이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그냥 물고기가 오르락내리락하며 가라 앉는 것이 아니라 서시라는 여자가 얼마나 예뻐던지 서시를 본 물고기가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정신이 없어, 헤엄치는 일을 잊어버리고 물속에서 가라앉았다는 말이다.

낙안(落雁)은 글자로만 보면 '기러기가 떨어졌다' 로 해석된다. 얼핏 '평사낙안(平沙落雁)' 이라는 말을 떠올려 글씨를 잘 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그냥 떨어졌다는 말이다. 왕소군이라는 여인이 워낙 아름다웠다. 게다가 거문고도 잘 탐다. 왕소군이 거문고를 연주하는 모습은 소위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마침 기러기들이 거문고를 연주하는 그녀 위를 날아가던 중 왕소군을 보고 정신이 빠져 날아가는 것을 깜빡하여 툭 떨어졌다는 말이다.

폐월(閉月)은 글자로만 보면 '달이 구름 속에 가리어진 다' 로 해석된다. 달이 구름 속에 가려지는 것은 어두워지는

것을 의미하여 현실의 부정적인 모습 등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조선의 아름다운 모습에 달이 부끄러워 슬그머니 구름 속에 숨어버린 것을 의미한다. 달덩이 같은 미모는 조선에게는 아무 것도 아닌 모양이었다.

수화(羞花)는 글자로만 보면 '부끄러운 꽃' 으로 해석된다. 꽃과 여자는 서로 상응되게 비유되기 때문에 다른 표현보다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양귀비의 아름다운 모습에 이쁜 꽃이라도 부끄러워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 괜스레 남자인 나는 멍해진다. '얼마나 이쁘기에 이런 표현을 썼을까' 아름다운 여인상을 그리다가 문득 부엌에서 소리가 들린다. 아내가 저녁을 차리고 있다. 상상 속의 여인과 놀다가 밤상을 준비하는 아내를 보니 괜히 짜증이 나려고 한다. 열등의식이 생기기도 한다. 한숨이 나려고 한다. 그러다가 '정말로 여기에 이러한 여인들이 나타난다면', 그래서 내가 말이라도 건네 본다면 이 여자들은 나에게 대꾸라도 해 줄까. 나를 너무 하찮게 보지 않을까. 눈길이라도 주지도 않을 것이 아닌가. 그래 !! 틀림없이 나를 하찮게 볼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중국의 역사와 연관이 깊은 그냥 평범한 여인네가 아니다. 영웅들의 이야기 속에 있어서 영웅만 상대했던 여인들이다. 더욱이 이 여인들의 미모 때문에 중국역사가 소용돌이 쳐지기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미인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지 않은가. 갑자기 르레오파트라도 내 생각 속에 등장한다. 그렇구나 !! 나는 이들에게 아무 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드니 갑자기 이 여인들의 달콤한 미소나 하느적 거리는 걸음 걸이나 녹아드는 춤들이 싸늘해진다. 부엌의 아내에게 슬그머니 정이 간다. 아 !!! 나는 속물이다.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미인의 대중을 이루고 있다. 영화배우나 탤런트 그리고 가수 심지어 개구멍까지 미인이 대세다. 더욱이 성형수술까지 있으니 아마 전설에 나오는 중국여인들이 지금의 미인관과 현재의 우리나라 미인에 비교하면, 상상속의 그 여인들에게 남자들은 엄청 실망할 지도 모르겠다. 시서가무(詩書歌舞)에 능하고 아름답기까지 한다는 황진이 가 지금 TV에 등장한다면 남자들이 환호적일까?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상을 한다는 일 자체가 이미 여인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니 여인의 아름다움은 항상 남자의 최고 관심사일지도 모른다. 역시 나는 속물이다.

사람들이 항상 배우자를 구할 때, 이상향을 원한다. 어릴 때부터 남자는 마음속에 아름답고, 마음씨 착하고, 현명하고, 늘씬하고, 어른에게 공손한 여자를 희망한다. 어디에 그런



여자가 있으랴? 아니, 가끔 그런 여자가 있지만, 내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자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찾아내기란 바다에서 바늘 찾기가. 남자들은 외모가 아름다우면 내면도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항상 그러했기 때문에 그럴까? 선한 주인공 여자는 항상 미인이다.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가, 외국도 그렇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신데렐라, 백설공주 등의 여인들은 우리 남자들이 상상할 수 있을 최고의 미를 그려놓고 있다. 슈레에 나오는 인물은 예외지만. 만약 내적인 미가 꼭 찬 여인이 외모는 영 아니면 어떻까? 반대로 외모는 천사인데, 심성이 엉망이면 어떻까? 남자는 어떤 여인에게 끌릴까? 한 남녀의 모습에서, 여인의 아름다움이 중심이 되어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고 남자의 인격이나 도덕이 중심이 되어 이야기가 전개되어 남자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모습은 없을까? 남자들의 자존심을 일으켜 주는 사람들이 없을까?



있다!!! 이러한 혼란을 잠재워 주는 인물이 있다. 퇴계 이황선생이다. 퇴계는 정말로 대단한 어른이었다. 일부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말이다. 정말 훌륭한 인품이 아닌가. 퇴계의 부인은 건강하지 못하였던 모양이다. 정신적으로 멀지. 이를 잘 알고 있는 퇴계는 건강하지 못한 여인을 일부러 아내로 맞이하였던 것이다.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배우자가 군자나 요조숙녀를 희망한다. 시경에도 요조숙녀는 군자의 좋은 배필(窈窕淑女君子好逑)이라 하지 않았던가. 한번은 퇴계의 집안에 제사가 있었다. 제사상에 여러 가지 과실들이 올려져 있었는데, 제사 위의 배 하나가 꼭꼭같이 사라졌다. 퇴계의 부인이 몰래 숨겼던 것이다. 맛있게 보여서 제사상에 놓여있던 배를 혼자 먹으려고 감춘 것이다. 그러나 곧 발각이 되었는데, 끝내 배를 내 놓지 않았다 한다. 밤늦게 퇴계는 아내가 있는 자기 방으로 들어와 아내를 나무라지 않고 과도를 가지고 와서 조심스레 배를 꺾어 주었다 한다. 나머지 일화들은 여러분이 상상하여 보시라.





사천(동성)이씨 대중회 역대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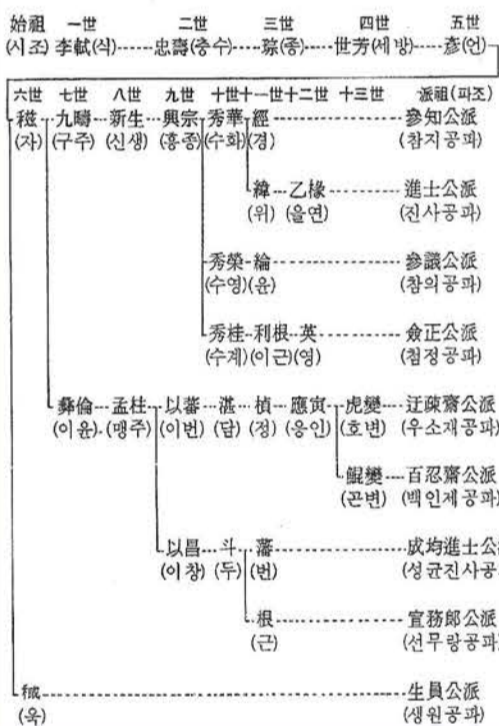
제1대 회장 이명춘 (참지공파 23세) 1973년 3월~1980년 3월	제2대 회장 이을용 (성균진사공파 26세) 1980년 3월~1990년 3월	제3대 회장 이재을 (참지공파 24세) 1990년 3월~1999년 4월	제4대 회장 이기태 (첨정공파 22세) 1999년 4월~2005년 4월	제5대 회장 이명규 (성균진사공파 25세) 2005년 4월~2008년 4월	제6대 회장 이봉록 (첨정공파 22세) 2008년 4월~2001년 4월	제7대 회장 이종우 (참지공파 24세) 2001년 4월~2014년 1월 28일(작고)	제8대 회장 이선영 (참지공파 24세) 2014년 4월~현재
--	--	--	--	--	--	--	--

사천(동성)이씨와 그의 소문중(파)는?

우리 일족은 이 세상에 올 때에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세월의 변천에 따라 고려 충렬왕(1236~1308)때 송악군수를 지내신 휘 “식(軾)” 선조를 시조로 받들고 선향(先鄉)을 사천(동성)으로 하는 천년의 사족이다.

2세조 휘 “충수” 선조로부터 10세조 휘 “수화”, “수영”, “수계” 선조 삼형제와 휘 “담” 과 “두” 선조는 백세에 스승이 될 만한 학문이 있고 인륜과 도덕 그리고 효행이 있어서 높은 가통의 선비 집안으로 성관의 자존을 지켜온 종족이다.

상세계도 (上世系圖)



5세조 휘 “연” 선조는 형제를 두었는데 6세조인 장자 휘 “자” 선조 아래 11세조에서 장파는 4계로 잡지, 진사, 참의, 첨정공파이고, 계파 4계로는 우소재, 백인재, 성균진사, 선무랑공파이며, 6세조인 둘째 아드님 휘 “욱” 선조는 생원공파로서 모두 9개 파의 일족으로 이어 전국 각지에 세거하고 있다.

1. 참지공파(參知公派)

청명 한식을 앞두고 지난 2014년 4월 1일 이선영 대중회 회장 외 참지공파 종인 20여명은 대곡면 용암리 서재 교도공 및 참지공 묘소와 선산을 둘러보고 참배하였으며 아울러 부산, 경남 거주 참지공파 송곡모임(참송회, 회장 이종수) 회원 10명은 매년 4월1일 묘소를 먼저 참배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참지공파 이준용 카톡전송>



함안군 칠서면에 사시는 참지공파 24세 경규(慶圭, 諱名:圭鳳) 贊唱께서 보내 주신 연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성함	단기	서기	간지
1세	식(軾)	3641	1308	戊申
2세	충수(忠壽)	3671	1338	戊寅
3세	종(宗)	3681	1348	戊子
4세	세방(世芳)	3706	1373	癸丑
5세	연(彦)	3762	1429	乙酉
6세	자	3819	1486	丙午
7세	구주(九疇)			
8세	신생(新生)			
9세	흥종(興宗)			
10세	수화(秀華)			
11세	경(經)	3839	1506	丙寅
12세	을추(乙樞)			
13세	인영(人英)			
14세	행민(行敏)	3909 萬曆4年	1576 宣祖9年	丙子



참지공파 24세 이경규 贊唱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438년 전에 함안군 칠원 지역에 살기 시작하여 현재 여러 가구가 살고 있고 자라는 학생 수가 늘어 가고 있으며, 14세 휘 행민(行敏)선조 묘는 이장하여 칠원 선산에 모시고 있습니다. <참지공파 24세 이경규>

2. 첨정공파(僉正公派)

파조(派祖)이신 12세 휘 “영(英)” 선조는 11세조 휘 “이근(利根)” 선조의 아들이며 선조(1608년)에 등과하여 선무원 증공신 통정대부 훈련원 첨정을 하셨습니다.



봉안당(奉安堂)

11세조 휘 “이근(利根)” 선조와 파조인 휘 “영(英)” 선조의 80여기의 유골을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219-1번지 100㎡의 묘지면적에 2003년 7월 19일에 봉안당(奉安堂)을 만들어 이곳에 안장하고, 있으며 매년 음력 8월 1일을 기준으로 파조의 후손들이 모여 성묘하고 있다.



경모재(敬慕齋)

시제는 경모재(敬慕齋) 사천읍 수석리 206-6번지, 51.4㎡면적의 대지에 위패를 모셔 매년 음력 10월 21일을 기준으로 가까운 일요일에 문중 후손들이 모여 시향을 지내고 있다.

첨정공파 문중은 전직 6대 대중회 회장으로 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셨고, 사천시 노인회 회장을 지내셨으며, 덕망 높으시고, 선조를 모시는데 최선봉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봉록” 대표가 주축을 이루어 꾸준한 노력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문중의 화합과 운영에 타의 모범이 되며, 현재 후손들을 사천, 진주, 광양 등 각지에서 세를 이루어 가고 있다.



제6대 회장 이봉록

3. 성균진사공파(成均進仕公派)

성균진사공파조는 11세조 휘 “번(藩)” 선조이다. 공은 별시위 보공장군을 지낸 장남 휘 “은” 과 성균생원이며 선무원 총공신을 지낸 휘 “연” 형제를 두었는데 형 휘 “은” 선조는 대곡을 중심으로 동생 휘 “연” 선조는 화암에서 세를 확장하여 살았다.



성균진사공 11세 휘 “번(藩)” 묘소

파조인 휘 “번(藩)” 선조의 묘소는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임327-5번지에 간좌이며 합봉으로 안장되어 있고, 매년 음력 8월 첫째 일요일에 후손들이 모여 성묘를 하고 있다.

큰집 휘 “은” 선조 후손들은 모선재(慕先齋, 사천시 사남면 죽전리 593번지)에서 매년 음력 10월 두째주 일요일에 모여 시



모선재(慕先齋)

향을 지내고 있고, 위패는 휘 “번(藩)” 선조의 각소문중 장손을 기준하여 3대조까지이며, 현재 60여 선조의 위패를 모시고 각 소문중 후손이 모여 시향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각지에 산재하여 잘 살고 있다.

작은집 휘 “연” 선조의 묘소는 파조 휘 “번(藩)” 선조의 묘 아래에 합봉으로 안장되어 있고, 매년 음력 8월 세째주 일요일 후손들이 모여 성묘를 하고 있으며, 시향은 그날 화암부락 뒷산 선조의 묘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현재 후손들은 전국 각지에서 산재하여 역시 잘 살고 있다.

4. 선무랑공파(先務郎公派)

선무랑공파조는 11세 휘 “근(根)” 선조이다. 선무랑공 휘 “근(根)” 선조의 행적을 기록한 글은 다음과 같다.

공(公)의 성함은 근(根:11세)이요 자(字)는 자회(子晦)이며 관직은 선무랑(宣務郎)에 이르렀다. 할아버지 성함은 이창(以昌:9세)으로 호조정랑(戶曹正郎)이며 아버지의 성함은 두(斗:10세)로 성균진사(成均進士)이며 그 외대 할아버지로서 성함이 자(6세)인 교도선생(敎導先生)이 계신다. 공(公)의 성품은 인자하고 인정이 두터우며 학문에 일찍 뜻을 이루어 재종형제인 성함이 정(楨)이신 구암선생(龜巖先生)과 더불어 서로 자주 만나 도덕(道德)과 의리(義理)를 갈고 닦으니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해와 달로 또한 큰 별과 작은 별로 비유하였고, 공(公)의 업적에 대한 가치(價値)는 언제까지나 길이 전할 것이며 빛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만년에 곤양현 송비산 아래 성방리에 정사(精舍)를 하나 짓고 후생을 깨우쳐 이끌어 지도(指導)하니 성취한 자 많았다. 한편 공(公)의 후손은 대를 이어 귀인이 출현하여 그 수가 또한 헤아릴 수 없으니 후인들은 공의 유덕을 입음이라 하였다.



파조인 휘 “근(根)” 선조의 아들들은 12세 휘 “영(英)” 선조이고 근기시(軍器寺)에서 주부(主簿)를 하였으며 묘(墓)는 아버지인 파조와 함께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우교(牛橋)위 언덕에 있고, 손자는 13세 휘 “득선(得善)” 선조이며 통정대부(通政大夫)를 하였고 묘(墓)는 사천시 사남면 죽전산(竹川山)에 있다.

13세 휘 “득선(得善)” 선조는 두 분의 형제를 두었는데, 큰 집은 14세 휘 “인발(仁潑)” 선조이고 통정대부(通政大夫)가 되었으며 묘(墓)는 파조 및 할아버지와 함께 성방리에 있고, 작은 집은 14세 휘 “의백(義白)” 선조이며 무과급제(武科及第)를 하고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을 하였으며 묘(墓)는 사천군 곤명면 성방리(본촌) 합달동에 있다.

작은 집 14세 휘 “의백(義白)” 선조의 자손은 영성재(永誠齋, 하동군 진교면 고흥리 구곡)에서 현재 40여 선조의 위패를 모시고 각 소문중 후손이 모여 매년 11월 마지막 일요일을 기준으로 시향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각지에 산재하여 그 역시 잘 살고 있다. 인터넷 블로그 주소는 <http://cafe.daum.net/sunmulang> (운영자:이영근)이다.

작은 집 14세 휘 “의백(義白)” 선조의 자손은 영성재(永誠齋, 하동군 진교면 고흥리 구곡)에서 현재 40여 선조의 위패를 모시고 각 소문중 후손이 모여 매년 11월 마지막 일요일을 기준으로 시향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각지에 산재하여 그 역시 잘 살고 있다. 인터넷 블로그 주소는 <http://cafe.daum.net/sunmulang> (운영자:이영근)이다.



서벽재 이공 효행 실기(棲碧齋 李公 孝行 實記)



성균전사공 25세 이 영 규

세상은 너무나 변천하여 옛날의 효행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현재,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는 우리 문중의 선조 되신 분의 효행 실기(孝行實記)를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여기에 소개하는 바입니다.

공의 휘는 지한이고 자는 명원이요 성은 이씨이며 관행은 동성이고 고려조 송악군수를 지내신 휘 “식” 선조를 시조로 받들며 파는 참의공이며 19세손이다.

공의 아버지는 “덕무” 이니 첨지중추부사였다. 할아버지는 “성재” 요 증조할아버지는 “만중” 이니 동성 대대로 진사가 되었고 글을 배움에 학업이 날로 성취되었다. 부모님의 모시려고 과거를 피하였다. 문장을 지을 때 화미함을 일삼지 아니하고 간단하고 진실함을 힘썼다.

어머님 병에 고생하여 백방으로 차도를 보지 못하니 공이 밤마다 북두칠성에 빌었더니, 어느 하루 밤에 문밖에서 탁-탁- 소

리가 있으므로 문을 열고 보니 범이 던져준 노루 고기가 있어 이 고기를 어머니에게 해 먹였더니 몇 일 만에 완쾌하시었다.

그 후 3년만인 임술 년에 어머니 상사를 당함에 애통하여 예를 다하고 장사함에 여묘(상제가 여막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무덤을 지키는 장소)코자 하다가 아버지가 살아계심으로써 하지 못하고 병인년 봄에 크게 열질이 일어나니 피할 곳을 부봉산(조원사 뒷산 이름)에 지으니 산이 깊고 수풀이 많아서 사람 사는 마을과 거리가 멀어 통하지 아니함이라.

아버지를 모시고 열질을 피함에 몸소 밥 짓기와 약을 달이기 위한 식수를 얻기가 어려워하던 중에 한 곳을 파서 샘을 얻었으므로 그 집 이름을 옥정재(玉井齋)라 하고 아홉 달을 지냈다.

이 해(병인년) 겨울에 아버지 상사를 당하여 부봉산 재실 뒤에 정하고 장사한 후 재실 묘 옆에 여묘를 차렸다.

조식(아침, 저녁)으로 전배하고 호곡하여 사람들이 깊은 산에 홀로 있는 것이 몹시 위험하다고 경계하여도 듣지 아니하였다.

다시 와서 보니 옛 샘이 말라 있으므로 공(지한)이 해매고 탄식하고 탄식하니 샘물이 갑자기 솟아났다.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기었다.

밤에 도적질하는 아이 셋이 있어 옷과 양식을 탈취하여 가더니 조금 지나서 아이 우는 소리를 따라간즉, 범이 있어 이미 한 아이는 물어 던지고 빼앗아간 옷과 양식은 범이 여막 앞에 갖다 두었다. 그날부터 밤마다 범이 와서 여막을 지켜 더불어 3년 동안을 같이 하니 기이하다. 이 효성이 범을 감동케 한 것이다.

3년 동안 복을 마치고 이어서 재실에 거처하면서 조식으로 성묘하고 이름을 서벽재(棲碧齋)라 고치니 효자의 행동하는 일이 때에 따라 달랐다.

사시(四時)와 신혼에 각각 글 한절로 지어 애모하여 따를 수 없는 한을 뚫으며, 집안일은 아들 양진에게 맡기고 교훈하는 책을 저술하여 주었다.

부부 거실하는 도(道)와 농사짓는 일과 집안을 다스리고 부모 섬기는 것과 제사 받들고 자식 가르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 들어 말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근검으로써 근본을 삼고 예의 바른 제도를 가훈으로 남기었다.

갑오년 5월 26일에 졸하니 봉산 선양 하에 장사하였다. 사나 죽으나 부모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뜻을 일러준 것이다.

배(配)는 김해 김씨니 정순하여 부덕이 있고 음식 장만함에 정성을 다하니 공(지한)의 부모를 잘 봉양함에도 내조를 잘 했다.

공의 아들 양건, 그리고 손자 채식까지 3대에 이어온 효행은 범이 감복한 이적으로 일어난 효감고사와 효행시, 효행가 그리고 효행실기를 엮은 서벽재 효감록이 전하기도 한다.(사천(동성)이씨 대동보 1권에 수록되어 있음)

끝으로 우리 문중의 조상님이 이렇게 훌륭하고 효행이 지극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이 험악한 세상 속에도 훌륭하고 효행이 있는 일족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 성 재 기 (永誠齋記)

‘오래도록 정성으로 공경하는 집’이라는 당호를 소재로 한 기록으로 선무랑공파 24세 이영근의 재해석



선무랑공파 24세 이 영 근

하동군 진교면 고통리 평당 마을은 땅이 넓고 기름지며 산수가 뛰어나 그 수려함이 그 근처에서는 으뜸이고, 동남으로는 사천을 경계로 교류를 하고 있으며 금오산이 뒤로 빼어나게 솟아 있고 사천 앞바다가 널리 펼쳐져 있으니, 그 형세의 아름다움으로 인물의 됬됨이가 한결같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

평당(들댕이)마을은 동성이씨 선무랑공파의 세거지이다. 첨정공이신 성함이 의백(義白, 선무랑공파, 14세)이고 자(字)가 사성(士城)이신 선조가 계셨는데, 즉 교도선생(자, 6세)의 후손이고 구암선생의 종숙부이신 성함이 두(斗, 10세)이신 선조의 현손이다. 공은 성품이 본래 강직하고 위엄 있으며 엄정하였고, 날이 갈수록 남다른 힘을 가진 사람이라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여 훈원원 첨정이 되었다. 사천부근에서 하동의 남쪽으로 옮겨와 산과 골짜기를 즐겨 다니며 예속의 구애를 받지 않았다.

자신을 계도하여 항상 효성스러움과 공경스러움으로써 근본으로 삼았으며 경학을 기본으로 삼아 한 순간의 선행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고, 자손도 많았으며, 유학의 도를 가르치던 스승으로서의 명성이 끊이지 않고, 가문의 명성이 쇠락하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살아가는 땅의 형세와 인물의 됬됨이가 한결같이 뛰어나다고 아니 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하물며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근본이 되는 도가 무너져 질서가 없어지고, 예의와 당연한 도리를 잊어버리고 혹 크게 잘못된 길에 빠져 들어가 조상을 받드는 법도가 무너지게 되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헐박하고 잘못된 것들만을 찾아내려 하고, 나아가 사람이 금수가 되어 천지가 뒤집어지게 되었다. 그 화를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으랴?

첨정공 “의백” 선조가 뒤를 이어 홀로 세교의 쇠퇴함에 물들지 않고 빈약한 우리 도(道)의 참된 뜻을 충만하게 하고 우리가 예부터 살아오던 땅에 살면서 선대들의 가풍과 절개를 지켜내고 또 의복을 바르게 하여 책을 읽고 학문을 연마하여 봄 이슬과 가을 서

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 여름 낮과 겨울 밤에도 숭모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연고로 1967정미년 봄에 서로 합의하고 힘을 다하여 재실을 금오산 아래 구곡(굴턱)마을에 지어니 재실이 무릇 5칸에 4당에는 제사를 지낼 수 있었고 그윽한 정원에서 금슬을 고를 수 있었다. 이를 명명하기를 영성재(永誠齋)라고 하니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어찌 감탄하지 않으리오. 이에 첨정공 “의백” 선조를 모시는 재실이 되었다.

재실이 완공됨에, 족속 규량(圭亮)이 충헌(忠炫)과 더불어 나에게 기록의 책임을 맡겼는데, 나는 글재주가 없는데다 늙기도 하여 고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어쩔 수 없이 글을 지었다.

우리 동성이씨의 발자취를 살펴보니 수서시 만큼 대단한 것이 없다. 그리고 구암선생이 퇴계 문하에서 종유할 때 두 선생을 칭하여 영남지방 도학의 종정이라고 하였다.

이 재실이 이백년 동안 경황이 없다가 마침내 하동군 남쪽에 건립하여 풍운이 힘차게 상서로움을 몰아와 우리 동성이씨 부흥의 기운이 마땅히 이 집에서 귀감으로 남게 되었다.

서기 1967정미(丁未)년 중양절(重陽節)에 족손 경환(璟煥)이 재배하고 삼가 기록합니다.



구암(龜巖) 선생님의 축망부(祝網賦)



부산청년회 회장
우소재공파 25세
이영갑 (李永甲)

축망부는 우리 선조이신 구암(龜巖) 이정(李楨) 선생님이 25세 때인 중종 31년(1536년) 2월 28일 근정전에서 치러진 문과별시에서 장원급제할 때 지은 부(賦)입니다.

축망부는 은(殷)나라 탕왕(湯王, 중국 은나라를 창건한 왕)당시 하(夏)나라의 걸왕(桀王)이 포악한 정치를 하자 제후들 대부분이 덕(德)이 있는 탕왕을 따르게 되었다. 걸왕은 탕왕을 하대(夏臺)라는 감옥에 가두어 죽이려 했지만 많은 돈과 교환하여 용서받았다. 탕왕은 현명한 재상인 이윤(伊尹) 등의 도움을 받아 걸왕을 물리치고 중국 천하를 평정한 고사(故事)를 인용하여 쓴 작품인데,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먼저 탕왕의 ‘축망(祝網)의 고사(故事)’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기(史記) 은본기(殷本紀)에 실려 있는 ‘축망(祝網)의 고사(故事)’는 다음과 같습니다.

湯出 見野張網四面 祝曰 自天下四方皆入吾網 湯曰 噫 盡之矣 乃去其三面 祝曰 欲左左 欲右右 不用命 乃入吾網 諸侯聞之曰 湯德至矣及禽獸(탕출 견야장망사면 축왈 자천하사방개입오망 탕왈 희 진지의 내거기 삼면 축왈 옥좌좌 옥우우 불용명 내입오망 제후문지왈 탕덕지의급금수) : 탕(湯)이 교외로 나갔다가 사방에 그물을 치고는 “천하 사방의 모든 것이 내 그물로 들어오게 하소서” 라고 축원하는 사람을 만났다. 탕이 탄식하기를 “아! 모두 다 잡으려 하다니!” 라며 삼면의 그물을 거두게 하고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 것은 왼쪽으로 가게하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것은 오른쪽으로 가게하며,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만 내 그물로 들어오게 하소서” 라고 축원하게 하였다. 제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탕(湯)의 덕이 지극하구나. 그 덕이 짐승에게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축망의 고사는 여씨춘추(呂氏春秋)에도 실려 있는데, 여씨춘추(呂氏春秋) 맹동기(孟冬紀) 이용편(異用篇)에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湯見祝網者置四面 其祝曰 從天墜者 從地出者 從四方來者 皆離吾網 湯曰 噫 盡之矣 非桀其孰爲此也 湯收其三面 置其一面 更教祝曰 昔蛛蝥作網罟 今之人學紆 欲左者左 欲右者右 欲高者高 欲下者下 吾取其犯命者 漢南之國聞之曰 湯之德及禽獸矣 四十國歸之 人置四面 未必得鳥 湯去其三面 置其一面 以網其四十國 非徒網鳥也(탕견축망자치사면 기축왈 종천주자 종지출자 종사방래자 개리오망 탕왈 희 진지의 비걸 기속위차야 탕수기삼면 치기 일면 갱교축왈 석주무작망고 금지인학서 옥좌좌좌 옥우우 옥고자고 옥하자하 오취기 범명자 한남지 국문지왈 탕지 덕급금수의 사십국귀지 인치사면 미필득조 탕거기삼면 치



기일면 이망기사십국 비도망조야) : 탕(湯)이 사면에 그물을 쳐놓고 축원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가 축원하기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땅에서 올라오는 것, 사방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모두 내 그물에 걸리게

하소서” 라고 하였다. 탕(湯)이 탄식하기를 “아! 모두 다 잡으려 하다니! 걸(桀)이 아니고서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였다. 탕(湯)은 삼면의 그물을 걷게 하고 한쪽 면만을 남긴 다음 다시 이렇게 고쳐서 기도하도록 하였다. “옛날에 거미가 그물을 쳤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을 모방할 뿐이다. 왼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왼쪽으로 가게하고, 오른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게 하라. 오르고자 하면 올라가게 하고, 내려가고자 하면 내려가게 하라. 나는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만 잡겠다.” 한수(漢水) 이남의 나라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탕의 덕이 짐승에게까지 이르렀구나.” 하면서 40개의 나라가 귀순해 왔다. 사람은 사면에 그물을 쳐놓아도 새가 잡힐까 말까 하는데 탕은 삼면을 걷고 한쪽 면만을 남김으로써 40개의 나라를 그물로 잡았다. 그물은 새만 잡는 것이 아니다.

이제 축망부(祝網賦)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猗上天之覆燾(의상천지부도) 아! 하늘이 덮어 밝게 비추심이며, 妙施化之惟均(묘시화지유균) 교화가 골고루 배풀어짐이 오묘하구나. 肆聖人之體元(사성인지체원) 성인의 밝은 다스림에 힘쓰시고 諒一視以同仁(예일시이동인)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 가득하네. 仰湯網之有祝(양탕망지유축) 탕왕이 그물을 보면서 축원한 말 우러러보니 感至德之溥博(감지덕지부박) 그 지극한 덕의 크고 넓은을 느끼겠네. 擴愛民之餘緒(확애민지여서) 백성 사랑하는 마음을 넓혀 竟微物之偏及(경미물지편급) 마침내 미물에까지 두루 미쳤도다.

時曷喪之方歎(시갈상지방탄) 폭군 길이 망하지 않아 백성들이 탄식할 때에도 抱不殺之仁德(보불살지인덕) 차마 죽이지 못하는 어진 덕을 배풀었네. 脫夏臺之拘繫(탈하대지구련) 마침내 하대라는 감옥에 갇힌 위기를 벗어나 保休命之維新(보휴명지유신) 천명을 받아 나라를 새롭게 바꾸었네. 路毫都而言邁(로호도이언매) 호도 가는 길에 제후에게 함께할 것을 약속받고 遇絙置之有人(우탁치지유인) 탁치지방 사람들은 음식을 대접했네.

掉發祝之饒舌(도발축지요설) 그물 치고 축원한 자 터무니없는 말 늘어놓으며 罟四面之高張(고사면지고장) 그물을 사면으로 높게 치고 籠兩間之飛走(농양간지비주) 양 쪽 사이로 도망가려는 모든 것을 잡아 欲打盡於一網(욕타진어일망) 한 그물로 일망타진 하려 했네. 嗟淫慾之是耽(사음욕지시탐) 아! 사람들의 탐욕은 이와 같은데 激聖慈之神衷(격성사지신중) 탕왕의 자애로운 마음 감격스럽기 그지없구나.

噫庶物之初賦(희서물지초부) 아! 만물에 처음 사명을 부여하며 紛蠢蠢之總總(분준준연지총총) 꿈틀거리는 벌레들이 모여들어 어지럽고 鍾氣化之駁濁(종기화지박탁) 기운의 혼탁함이 모여들어 縱偏塞之有異(종편색지유이) 두루 퍼짐과 막힘이 서로 달라 어지러웠네. 然吾與之爲物(연오여지위물) 그러나 우리 자신도 그러한 사물 중 하나이고 亦攝生於天地(역섭생어천지) 역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어서 固物我之無間(고물아지무간) 진실로 만물과 나 사이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니 初豈殊於彼此(초기승어차차) 처음부터 저들과 나 사이 무슨 다름 있으리요? 宜盡性而及物(의진성이급물) 마땅히 본성을 다해 덕이 사물에 미치도록 하고 圍群類於卵育(유군류어란육) 만물을 포용하여 어버이 마음으로 기르니 胡貪慾之是肆(호탐욕지시사) 어찌 탐욕의 그물을 사면으로 치듯이 恣逞意而外發(사정어의외발)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矧吾人之中立(신오인지중립) 하물며 우리 인간을 만물의 중심에 세워 首萬物而爲主(수만물이위주) 그 주인이 되도록 한 것은 荷天界之最厚(하천계지최후) 하늘이 가장 무거운 짐을 지워 任化育於率普(임화육어솔보) 두루 만물을 화육시키도록 임무를 준 것이니 倫肆暴而盡物(당사포이진물) 방자함과 포악으로 사물의 본성을 대하게 되면 寔自失其主道(실자실기주도) 이는 스스로 주인 된 도리를 잃는 것이리라. 應取物之有節(응취물지유절) 사물을 취함에 올바른 법도를 가지고 응하여 答天心之洪造(답천심지홍조) 하늘의 크나큰 은혜에 답해야 하는 것이니 玆惻念而闢說(자측념이천원) 이에 탕왕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 나타내어 爰開三而掛一(원개삼이괘일) 삼면의 그물을 열고 한쪽만 걸게 한 것이리라. 伊惑左而惑右(이혹좌이혹우) 그리하여 좌우 어디로 갈지 의심하다가 聽自罹而是獲(청자리이시획) 듣기에 스스로 걸리는 것만 잡는 것이리라.

推一端之子諒(추일단지자양) 탕왕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쪽 끝을 들추어 活三隅之禽獸(활삼우지금수) 세 방면으로 도망가는 금수를 살리시니 物自得其生生(물자득기생생) 만물은 스스로 그 생명을 얻게 되었고 嘉血氣之咸遂(가혈기제합수) 탕왕은 살아있는 생명이 따름을 기뻐하였도다. 荷一物之失所(구일물지실소) 진실로 하나의 사물이 그 근본을 잃게 되면 若患害之在躬(약환해지제궁) 마치 근심이 몸에 있는 것과 같으니 是豈干譽而外(시기간예이외) 이 어찌 명예를 밖에서 구할 것이겠는가? 諒網罟之由中(양봉창지유중) 참으로 총명한 의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偉此心之不忍(위차심지불인) 폐하의 인자하신 마음은 탕왕과 같아서 實至仁之拳如(실지인지권여) 실로 지극한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德既及於羽毛(덕기급어우모) 덕(德)이 새의 깃과 짐승의 털에까지 미쳤으니 恩豈畜於黔黎(은기색어검여) 은혜가 어찌 백성에겐들 인색하겠습니까? 嚴宇惠而懷保(엄우혜이회보) 삼가 하늘같은 베풀심으로 아끼고 보호하여 盡涵泳於聖澤(진함영어성택) 모두 폐하의 은혜에 노닐게 하였습시다. 識人物之咸被(애인물지합피) 온화함으로 사람과 사물을 모두 보살피시니 致和氣之浹洽(치화기제협합) 그 기운은 물이 스며들듯 고루 퍼졌습시다. 有大畏而小懷(유대외이소회) 백성의 뜻을 두려워하여 작은 것도 풀어주시니 或遠來而近悅(혹원래이근悅) 올바른 정치의 덕이 만방에 미쳤습시다. 竟代虐而莅位(경대학이래위) 마침내 폭정을 대신하여 왕위에 오르시니 纘大禹之舊服(전대우지구복) 탕왕이 우왕의 옛일을 이어받은 것과 같습니다.

懿祝網之一心(의축망지일심) 그물 보면서 축원하는 마음 아름다워 樹國脈於六百(수국맥어육백) 나라 세운 맥이 600년을 이을 수 있었습시다. 痛三代之云淤(통삼대지운적) 그러나 애석하게 삼대의 태평성대는 멀어져가고 世仁君之不作(세인군지부작) 세상에 어진 임금은 나타나지 않았습시다. 芟赤子兮猶忍(삼적자제유인) 백성을 베어내는데도 오히려 참는다면 況推恩而建勳(황추은이건훈) 어찌 임금의 은혜를 만물에 미치게 하였습니까? 田焚林於成丘(전분림어합구) 춘추시대 합구에서 숲에 불을 질러 사냥한 일은 已見罪於聖筆(이견죄어성필) 이미 공자님의 붓끝에서 추궁 당했으니 矧以羊而易牛(신이양이역우) 하물며 양으로 소를 대신하는 것은 徒矯情而非實(토교정이비실) 헛되이 진정을 억누르는 속임수입니다.

久仁德之未聞(구인덕지미문) 어진 덕을 배뉘는다는 말 들은 지 오래인데 慶復覲於今日(경복도어금일) 오늘 다시 볼 수 있음에 기쁘기 그지없습시다. 民含哺於聖德(민함포어성덕) 백성은 임금의 성덕에 배부르고 又蒐狩之以時(우수수지이시) 또한 임금은 때를 맞춰 사냥하니 既仁民而愛物(기인민이애물) 이는 이미 백성에게 인을 베풀고 만물을 사랑하는 것이며 邁成湯之允釐(매성탕지유리) 탕왕의 다스림을 본받으려 힘쓰는 것입니다. 然此心之靡常(연차심지미상)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에 願聖上加敬而孜孜(원성사경이자자) 원컨대 성상께서는 더욱 근신하고 힘쓰시어 親而民兮而物(친이민이예물) 백성과 만물을 친히 살피시고 冀軒仁而不忒(기서인이불복) 인(仁)의 질서를 바로잡으심에 틀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幸承虛於前席(행승허어전석) 뜻하지 않게 앞자리에서 글을 바치게 되어 勳推此而啓沃(근추차이계육) 삼가 이 글로써 충심(忠心)을 아립니다.

이 글을 살펴보면 구암(龜巖) 선생께서는 우선 탕왕이 삼면의 그물을 거두게 한 축망의 고사를 들어 탕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뿐 아니라 미물까지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칭송한 다음, 중종 임금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산군의 포악한 정치를 몰아내고 집권하였으니, 탕왕의 그러한 마음을 본받아 더욱 정진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어진 덕을 배풀어달라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이 축망부에는 구암(龜巖) 선생님의 치도(治道), 특히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글이라 하겠습니다.



사랑꽃

어둠속에서
플레시를 밝히 듯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보세요.
사랑은 꽃향기처럼
멀리 멀리 번집니다.

그리하여
꽃향기는 사랑의 빛이 되고
몸과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봄향기처럼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원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는
도처에
사랑꽃을 심는 것입니다.
겨우내 얼었던 토양을
이제 봄의 기운과 함께 깊게 파서
그 곳에 사랑꽃씨를 심어주세요.
그러면 곧 사랑꽃이 피어나서
얼어붙었던 삼들의 가슴속으로
꽃향기가 유정(有情)하게
스며들 것입니다.

봉사는 꽃향기로
꽃향기는 사랑으로
사랑은 빛이 되어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축봉 (참지공 26세)
이 병 무



나의 여행기

〈죽기 전에 꼭 한번은 가봐야 한다는 울릉도+독도를 가보자〉

생원공파 25세 이 정 석



울릉도, 독도는 배편이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은 달리 접근조차 쉽지가 않은 곳이다.
나는 지난 가을에 이어 봄에도 울릉도, 독도를 혼자만의 일상

탈출을 감행하고 돌아 왔다.

그동안 국내 여러 곳을 여행해 보았지만 울릉도는 참 매력 많은 곳이라 빠져 들게 만드는 곳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 이유는? 때 묻지 않은 자연 환경과 태고적 원시 비경이 잘 보존된 곳이기 때문이다.

포항에서 23991급의 선플라워호를 타면 편도로 3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되어 울릉도의 관문 도동항에 발길이 닿는다. 울릉도는 제주도의 1/8정도의 크기에 인구는 만명 정도이고, 1읍2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로라야 시멘트 포장도로로서 해안을 따라 도는 50km 정도가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산섬의 특성상 평지는 성인봉 아래의 나리 분지가 유일하며 따라서 논농사는 아예 없기도 하거나와 주로 산비탈을 개간하여 약초와 산나물 재배 그리고 주로 어업인 오징어잡이와 관광업에 주민 대부분이 종사 한다.

포항에서 09:50분 출항을 하여 13시경 도동항 여객터미널에 내린 나를 지금까지 본 육지의 풍경과는 단판인 분위기가 마음까지 들뜨게 한다. 울릉도의 별미 중 하나인 따개비 칼국수로 오찬을 때우고 나서야 먼저 우측 해안길 산책에 나섰다. 바다 물색은 청정지역답게 에메랄드 물색을 보여주었고 건너편 산언덕엔 오랜 세월 풍상에도 버티낸 한 그루의 향나무가 시야에 분재처럼 들어오누나.



작은 체구의 향나무는 수령이 2,000여 년으로 추정된다나 뭐라나 암튼 믿거나 말거나 그렇다. 하늘은 맑고 푸르고 날씨마저 청명하니 기분은 날아갈 것만 같다. 떠나오길 참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스쳐갈 즈음 난 좌측의 저동으로 이어지는 행남해안 산책로에 접어들고.. 우리나라 10대 해안트레킹 코스로는 가히 으뜸이라는 여기를 천천히 즐기며 가보자. 혼자 다니는 여행이라 가져다 재촉하는 이도 없고 기다리는 이도 없으니 발길 닿는 대로 쉬엄쉬엄 발길을 옮겨 3시간 만에 저동항 촛대 바위에 당도했다.

명불허전이 따로 있나요? 여기가 바로 명불허전 행남해안산책로가 아닌가?

혹여 가시거든 여기는 꼭 가보시라..

여행은 현지의 맛집을 찾아 미각 여행을 겸하는 게 즐거움을 배가시켜 준다. 미리 공부한대로 먹자골목에 위치한 정애식당을 찾아 오징어 내장탕을 주문하였다. 듣던 대로 얼큰함과 허끝에 전해지는 내장의 부드러움이 가히 일품이다.

인근의 게스트하우스에서 1박을 한 나는 여명이 밝아 올 시간에 저동의 수협위판장을 가보았다. 어둠이 걷히기 전인데도 어부들의 일상은 밤새 잡아온 오징어 상자 하역과 이어지는 경매 그리고 어른 아낙네들의 분주한 손놀림은 가히 달인 수준이었다. 이처럼 현지의 일상과 속살을 느껴보는 여유 이게 바로 진짜배기 여행이다.

06:20분 저동에서 천부로 가는 첫 버스에 몸을 실어 중간에 타고 내리는 사람이래야 두세 사람뿐이고, 천부중점에 하차를 하여 나리 분지로 가는 소형버스로 환승을 하여 고개에 자리한 나리전망대에 도착을 하니 08시이다. 군내 유일한 분지인 이곳은 동서1.5km 남북 2km로 화산분화구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지구에서 유일하다나 뭐라나..ㅎㅎ.. 성인봉 세찬 바람도 쉬어 간다는 이곳에서도 그리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서둘러 분지를 향하여 쉬엄쉬엄 걸어가 본다. 나리봉을 타고 넘는 아침 햇살은 눈부시고 전면의 성인봉 하늘은 파란 얼굴로 나그네를 맞이하누나.

이제 눈 녹은 양지쪽엔 이름 모를 식물들이 파아란 짙은 틱우고 있었고, 4월이면 온통 산야엔 그 유명한 명이나물(일명 산마늘)이며 부지깽이, 전호나물, 고사리 등이 지천에 널려 있을 것이다. 중앙로 도로변엔 너와집과 투막집은 관광객들 눈요기로 잘 보전 되어 있었고, 적벽돌의 나리고외당도 한 폭의 동양화 그대로였다. 여기 오지 않았다면 이런 호사도 없는 것이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여행은 부지런한 자의 전유물인 것이다.

새벽녘에 마신 한 잔의 우유론 허기가 느껴지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던데? 아침부터 문을 열어놓은 한 식당을 찾아 들어가 이곳의 별미인 산채비빔밥을 주문을 하여 맛을 보니 소문 그대로의 유명 맛집이었다.



나리 분지의 속살을 찾아 인적도 드문 마을 구석구석

과 태초의 원시림을 즐기러 신령수까지의 트레킹은 혼자만의 호연지기를 맘껏 즐기기에 충분하였다. 집에 가면 남는 건 사진뿐이니 실재없이 울리는 셔터 소리만 귀를 간지럽힐 뿐이다.

돌아오는 길엔 태하의 황토굴과 모노레일을 타고 등대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대풍감 해안의 아름다움은 일단 한번 가보시라는 말밖에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다.

마지막 날인 오늘은 독도를 가는 여정이다. 저동 해안가 산책을 끝낸 나는 여객선 터미널 인근의 유명 맛집인 전주식당에서 별미인 흥합밥으로 조찬을 마친 후 독도행 배에 몸을 실었다.

낙동강의 끝자락에서 독도를 간다는 것은 죽기 전에 한번이라는 말도 있거나와 산넘고 물 건너 천리길이라 여간 호락호락하지 않음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동해의 물살을 가르며 90분을 내달려 나타난 서도와 동도, 이렇하여 독도라 했던가요?



그리고 와 보고 싶어했던 울릉도 동남쪽 87.4km 지점의 독도-접안 성공률은 다섯 번에 한번 풀이라 하고, 곧 접안을 하겠다는 방송이 있고 나서야 여기저기선 성공이라며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온다. 접안에 성공이 못하면 바깥을 2회 선회하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먼 길 온 나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수백 여 관광객들은 서둘러서 내린 후 저마다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고, 난 카메라로 보이는 건 모두 주위 담기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독도는 기지가 있는 동도와 주민이 거주하는 서도가 200여m 거리로 마주 보고 있으며, 주변엔 50여개의 작은 섬들이 호위병처럼 감싸고 있다. 숲길 바위와 촛대바위 등 직접 접해 느끼는 감흥은 직접 보지 않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듯하다.

하선한 지 30여 분이 가까워 오니 서둘러 승선을 해달라는 방송이 귓전을 때리고, 아쉬워도 어쩔 수가 있는가? 다음에 다시 찾으리라는 다짐을 뒤로 하고 왔던 길 거슬러오니 정오가 가까워 온다.

인근의 내수전을 조망한 뒤 내일은 주의보 발령이 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기도 해서 일정을 하루 앞당겨 15:30분 배로 포항을 거쳐 자정이 가까워오는 시간에 집엘 도착을 하였다.

꿈꾸는 자의 도전은 현실이 되기에 필요조건이자 충분 조건이다. 여행은 도전이다. 그리고 여행은 열정이다. 자기만의 일상 탈출은 생활의 비타민이다.

여러분도 마음이 가거든 꼭 한번은 다녀오소서!
(2014. 3. 30)



사천(동성)이씨 유명인사 (전,현직사무관,변호사,교장,군인,경찰,사장,원장등)

파조별	세수	성명	전/현직	근무처 또는 직위	주소	비고
참지	24	이인환	전직	감사원 과장	서울시	
참지	24	이종수	전직	부산시 북구청장	부산시	
진사공	25	이병태	전직	대전교육청 과장	대전시	
진사공	26	이승현	전직	공군 대령	서울시	
첨정공	22	이봉록	전직	초등학교 교장	사천시	
백인재	27	이영일	전직	고등학교 교장	사천시	
성균진사	25	이봉기	전직	고등학교 교장	진주시	
성균진사	25	이영규	전직	거제시 과장	사천시	
성균진사	25	이기호	전직	경남 함양 부군수	창원시	
성균진사	26	이정찬	전직	초등학교 교장	사천시	
성균진사	26	이금생	전직	인기부 과장	경기도	
성균진사	26	이무경	전직	초등학교 교장	창원시	
성균진사	26	이기형	전직	초등학교 교장	창원시	
성균진사	26	이화진	전직	육군 중령	광주시	
선무랑	22	이팔성	전직	우리금융지주회장	서울시	
선무랑	22	이준현	전직	기상대 대장	진주시	
선무랑	22	이동현	전직	고등학교 교장	거제시	
참지공	24	이선영	현직	대학교교수 박사	부산시	
참지공	25	이준용	현직	경제자유구역청 부장	창원시	
참지공	25	이호종	현직	변호사	서울시	
참지공	25	이윤중	현직	변호사	서울시	
참지공	25	이화원	현직	국무총리실(미국유학)	서울시	(女)
참의공	25	이진	현직	산자부 정보담당관	서울시	
참의공	25	이명진	현직	농식품부	마산	
첨정공	23	이원기	현직	한일정형외과 병원장	서울시	
우소재	25	이영길	현직	농식품부	부산시	
우소재	27	이창문	현직	경찰서 정보과장	진주시	
우소재	25	이영곤	현직	내과병원장	부산시	
우소재	25	이영갑	현직	변호사	부산시	
우소재	25	이영준	현직	초등학교 교장	사천시	
우소재	26	이우식	현직	요양원 원장	서울시	
백인재	27	이상환	현직	청와대	창원시	
백인재	25	이영기	현직	감정원	부산시	
성균진사	25	이경규	현직	교수-경영학회장	진주시	
성균진사	26	이화진	현직	도남철강사장	서울시	
성균진사	26	이상진	현직	식품의약품과 과장	사천시	
성균진사	26	이태훈	현직	국세청	사천시	
성균진사	27	이남근	현직	사천시 면장	사천시	
성균진사	27	이외식	현직	사천시 면장	부산시	
성균진사	23	이승렬	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	진주시	
선무랑	23	이종수	현직	기업체 파견-공학박사	부산시	
선무랑	24	이영근	현직	고등학교 교장	진주시	

가문의 뿌리를 궁금해 하는 아들이!



이 호 중
(참지공파 25세)

“아빠! 우리 조상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누구세요?”
휴일에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던 아들이 올해 초에 나에게 던진 갑작스런 질문이다. 순간 나도 어릴 적 선천계 똑같은 물음을 던진 적이 있어 새삼 옛날이 그리워졌다.

역사공부를 좋아했던 나를 닮아선지 사극을 즐겨보고 역사와 관련된 서적을 줄곧 탐독해 오던 아들 녀석이 5학년을 마치기 전에 반 아이들을 상대로 역사관련 수업을 하기로 한 모양이었다. 학기 중에라도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반 아이들을 상대로 강의준비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지만 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제를 ‘반 아이들의 조상에 대한 연구’로 잡아 나에게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아빠! 우리 반 김○○는 조상이 김수로왕이고, 이○○는 조상이 왕족이라고 하고, 박○○은 현재 대통령하고 친척이라고 자랑하는데... 우리 조상 중에도 수업 중에 설명할 만한 유명한 분이 누구 없어요?” 어릴 적 역사책을 읽고 위인들을 알게 되면서 내가 품게 되었던 궁금증과 같은 맥락이었다. 동성이씨는 나의 고향 진주시 대곡면에서는 나름대로 꽤 알려진 성씨였다. 어느 가문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큰 소리를 치던 집안이었지만, 그곳을 벗어나면 ‘잘 모르겠다’, ‘처음 듣는 성씨다’라는 반응이 많았고, 그래서 동성은 사천의 옛 지명이며 사천이씨라고도 한다고 하면 그제야 대중 알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다.



가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늘 뿌듯했었다. 우리 일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기회가 생기면 ‘우리 동성이가는 고려 충렬왕 때 시작되어 조선을 거쳐 수백년을 이어 오고 있는데, 자손이 귀해 총 인원이 일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순수 혈통을 유지하면서 글공부를 많이 하여 학자가 많이 나온 문신집안’이라고 치켜세우며 자랑해 왔다.

아들에게도 당연히 ‘빠대 있는 대단한 집안’이라고 말해 주었지만, 막상 인터넷이 발달된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쉽게 조상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서 막연하게만 말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참지공파’를 설명하면서 ‘참지는 조선시대 병조에 소속된 정3품 당상관 벼슬’을 의미하는데, 그 벼슬을 지낸 분을 중시조로 모시는 일과라고 알려주었다. 현재로 치면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인 셈이다.

그래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아들을 보며 이번에는 구암 이정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냈다. 이곳저곳 인터넷을 검색하더니 쾌재를 부른다. 드디어 자기도 반 아이들한테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었다. 퇴계 이황 선생과의 절친한 인연과 사천시에서의 우리 일가의 위상을 찾아 낸 것이었다. 나도 한숨을 돌렸다. 구암 할아버지의 높은 식견과 두루 거친 벼슬, 거기에는 효심 가득한 삶이 고스란히 검색되어 나왔다. 인터넷의 발달로 나도 미처 모르던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아들의 수업 준비로 인해 나에게도 소중한 조상 연구의 기회가 된 셈이다.

물론 정치를 하고 높은 벼슬을 했다고 해서 마냥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시대를 이끌어 가고 하나의 전문분야를 이루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가문의 영광으로 삼을 만하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후손들 모두가 가문의 뿌리를 찾고 조상의 발자취를 따라 간다면, 우리 문중은 더욱 번성할 것이며 구암 할아버지를 능가할 많은 후손들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아들이! 어린 나이에 뿌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늘 행복하렴!’
- 서울 서초동에서



개성공단



이 준
25세손 참의공파

우리 성의 시조 식(軾) 할아버지께서는 국자진사로 행(行) 송악군수를 역임하셨다. 여기서 행(行)이란 행수법(行守法)에 의한 보직 임명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행수법은 중국 당나라 이후 사용하였고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는 1442년(세종 24년)에 처음 사용하였다. 행(行)이란 품계가 높은 사람을 낮은 관직에 임용하는 계고직비(階高職卑)를 말한다. 즉 계급이 높은 사람을 낮은 직책에 임명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직이 중요하기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임명하거나 또는 징계의 일환으로 활용하였다. 수(守)란 품계가 낮은 사람을 높은 관직에 임용하는 계비직고(階卑職高)를 말한다. 비록 직책은 높지만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사기진작책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의 송악은 오늘날 서울시와 같은 수도(首都)로서 송악군수는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매우 중요한 직책이다.

송악은 송도, 개성, 개경으로 일컫기도 하였다. 송악 주위에는 예성강 유역의 신광·연백 평야, 사천강유역의 사천평야, 임진강하류의 장단 평야, 한강 및 하류의 풍덕·김포 평야 등 넓은 농경지가 있어서 경제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또 산으로 둘러싸여 방어에 유리하였고, 편리한 해상 교통로를 가졌으며, 비교적 풍부한 평야지대를 끼고 있어서 수도로서 적합한 곳이었다. 고려가 망하자 여말선초(麗末鮮初) 시대의 원천석(元天錫)이 지은 시조 ‘망국의 설움’을 떠올리며, 일제강점기 시절 전수린이 동방극단의 연주를 맡아 순회공연을 하던 중 1928년 개성 부근 만월대의 폐허를 보고, 웅장한 황성(皇城)이 쓸쓸한 황성(荒城)으로 변해버린 서러운 심정을 담아 <황성엠테터>란 곡을 작곡하였고, 배우 왕평이 선율을 듣고 가사를 붙였다. 이후 단성사에서 막간가수로 무대에 나선 이에리수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망국의 설움을 이 노래에 담아 부르다가 숫구치는 오열을 참지 못해 결국 노래를 중단하게 되었고, 관객들은 박수로써 재청을 했다고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노래를 즐겨 불렀다고 한다.



송악(개성)의 만월대

족보 4세 할아버지 세방(世芳) 조(條)에 익(益)의 후예 농서분파라는 항목이 있는데, 보다 정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다. 익은 중국 당나라 때 학자 겸 관료로 이름을 날리며 무수한 시를 남기신 분이시다. 당나라 때 중국의 명문 성씨로 박릉 최씨(博陵崔氏), 농서 이씨(隴西李氏) 등이 있었는데 이의 영향으로 고려 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의 본관과는 관계없이 이씨라면 농서 이씨(隴西李氏), 최씨라면 박릉 최씨(博陵崔氏)로 과장해서 부르는 풍조가 있었다. 이씨나 최씨를 높여서 예우를 해주는 방편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외람되지만 농서분파란 말의 신빙성에 의혹이 생긴다.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져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나마 개성공단이 남북의 끈을 미미하게 이어주고 있다. 개성공단소식을 들을 때마다 시조 할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나의 뿌리를 생각하게 된다.

부고(訃告)



대종회 이종우(참지공 24세) 전 회장이 2014년 1월 28일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형 환
(하동 진교면)

베플 때에 “우리”가 된다

해마다 추석이 다가오면 선산의 별초 날을 정하여 찾게 된다. 떨어져 살던 피붙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간의 안부와 살아오고 살아갈 일들과 조상의 덕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이 날 만큼은 산자와 죽은 자의 만남의 장(場)이 되니 얼마나 좋은 곳인가?

선산의 별초 때에는 시기적으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니 어려움은 따르기 마련이다. 한 해만 별초를 빠뜨리면 숲은 뒤엉켜 선산가는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 가시덤불과 역새 칩널쿨로 덮혔으니 어렵곳이 보이는 산등을 어렵잡아 산소를 찾기도 한다. 산골짜기 안은 이곳저곳 예취기의 소리가 고요한 산을 들쭉들쭉 거른다. 굉음의 그 소리에 효심이라는 마음으로 위안을 삼고 갈끔한 산소 앞에 후손의 마음은 고개를 떨군다.

풀 냄새가 땀 내음을 날려준다
무릎 꿇고 고개 속에 자신을 찾아본들
보낸 세월이 핑계가 된다.
움켜쥐려는 속성 때문

큰 건 아까워하고 작다고 망설이다
지그시 눈감고 만다.

무엇하나 베플고 눈감고 떠날 것인지.....
가진 자의 자량은 돌아서면 뒤가 보이지만
베플 자의 삶은 감춰도 빛이 난다.

선산을 오가는 새소리와 바람은
맑은 정신을 채워준다.
넉넉한 살림과 여유로운 시간을
가진 자 어느 누가 있겠는가?
자기 뒤편 챙기는 서글픈 행복은
집착 못 할 마음만 숫구친다.

<맹자>의 공손축장(公孫丑章)에 사단설(四端說)을 보면
· 남을 측은해 하는 마음과
·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고
· 사양하는 마음과
· 잘 잘못을 가리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우리”가 된다는 것은 예절의 실천이라고 본다.



여기 소식지 4호에 담을 원고를 청탁하오니, 부디 사양마시고 보내 주시면, 정성드려 인쇄하여 널리 배포하겠습니다.

- ▶ **소식지의 성격** : 학술적인 것 보다 일상생활 주변 이야기 중심으로 가볍고 쉽게 읽힐 수 있는 소식지로 엮어 보고 싶습니다.
- ▶ **원고의 장르** : 각 문중의 선조 또는 자손 이야기, 기행문, 수필, 시, 사진, 편지글, 논설, 종인들의 소식, 대종회 운영 현황 등등

- ▶ **원고의 분량** : 제한 없음(반드시 개인사진, 자료사진 포함)
- ▶ **원고 송부 마감 일시 및 소식지 4호 발행 일시** : 2015년 3월말, 대종회 춘향제
- ▶ **소식지 발행에 따른 기부금 접수 또는 광고비** : 대종회 사무국
- ▶ **원고를 보낼 곳** : e-mail ☞ leeyg@chol.com
편집위원 이영근 (선두랑공파 24세)